

“창작지원 힘쓸 미협회장 원한다”

광주미협 정흥기·정순이·이병오 3파전

20일 선거...미술인들 “협회위상 높여야”



〈정흥기 씨〉 〈정순이 씨〉 〈이병오 씨〉

“미술인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지역의 대표 문화 단체로 이끌 미협 회장을 원합니다.”

오는 20일 치러지는 제9대 광주 미술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미술인들이 회원들의 처우개선과 창작 지원에 힘쓸 참신한 인물을 갈망하고 있다. 이번 광주미협회장 선거에는 정흥기(53·서양화), 정순이(56·서양화), 이병오(53·문인화·기호수) 등 3명이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표밭다지기에 돌입했다.

지역의 미술인들은 언제부터인가 의단체로 변질되고 있는 미술협회의 위상을 바로 잡아 창작 중심의 협회를 만들고, 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 회장으로 뽑혀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과 맞물려 미술협회의 위상이 높아지면 이번 선거를 지켜보는 미술인들

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술평론가 윤진섭(호남대 교수)씨는 “광주의 미술 기반이 취약하고, 국제화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작가들의 국제무대 진출을 도울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인물이 회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광주시립미술관 박지택 관장도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술협회가 자생력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 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회비에만 의존하던 미술협회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켜, 그 수익을 작가들에게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작가들도 후보자들에게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납발하기보다는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양화가 A씨는 “그동안 미협이

유명 작가와 원로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젊은 작가들이 설 자리가 없었다”면서 “젊은 작가들의 개인전과 해외 아트페어 참여 등을 미협에서 지원해 줘야겠다”고 말했다.

한국화가 주대희(28·한국화)씨도 “학연을 떠나 회원들이 마음껏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작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술인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과 함께 회원들의 실질적인 창작을 지원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용우 상임 부이사장은 “창작 중심의 단체인 만큼 회원들의 창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물이 협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 출마한 정흥기씨는 작품 관료 개혁과 다양화, 청년 작가 장학제도, 지역 작가를 위한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순이씨는 해외 아트페어와 비엔날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한편, 기업의 지원을 받아 작가들의 장학금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병오씨도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미술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장 선거는 오는 20일 오후 광주시민회관에서 정기총회와 함께 열리며, 회원 1천200여명의 직접 투표로 진행된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새해맞이 광주시향과 함께

31일 밤 9시 30분 문예회관에서 ‘노는 음악회’ 개최

관객들과 2010 카운트 다운

“2010년 새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구자범)이 2009년 마지막날인 오는 31일 밤 제야음악회를 마련한다.

이번 음악회는 80여명의 단원들이 연주하는 웅장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고 함께 카운트 다운을 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색다른 무대다. 여느 때와 다른 근사한 망년회와 새해맞이를 계획중이라면 놓치지 아까운 음악회다.

한해의 마지막 날 열리는 제야음악회는 서울 등지에서는 가끔 있는 연주회지만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마련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광주시향 제 252회 정기연주회 ‘새해맞이 노는 음악회’라는 이름을 부친 이번 연주회는 밤 9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문을 연다.

광주시향은 이날 연주회에서 주제의 ‘경기병 서곡’, 오펜바하의 ‘천국과 지옥’, 로시니의 ‘윌리엄 텔’, 레하르의 ‘금과 은 왈츠’, 보르딘의 오페라 ‘이고르프’ 중 ‘폴로베츠인의 춤’, 말프르 윈리엄스의 ‘푸른옷소매 환상곡’ 등을 선사한다.

그밖에 성악가 박수연(소프라노), 석현수(소프라노), 이장원(테너), 김재섭(바리톤)씨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들이 등장해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등 유명 오페라에 삽입된 아름다운 아리아도 들려준다.



또 다른 ‘음악회’는 실내 공연이 끝나는 밤 11시30분부터 시작된다. 이번엔 문예회관 로비가 무대다.

공연에 참여했던 성악가들이 또 다른 레퍼토리를 들려주며, 시향 단원들과 연주자들이 제즈 등 흥겨운 음악을 선사한다.

공연 후에는 함께 새해 맞이 카운트 다운을 하며 경이년 새해를 맞이

하는 이벤트가 열린다. 로비에서는 간단한 먹을거리도 즐길 수 있다.

티켓 예매는 오는 11일부터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원, 1만원. 학생(대학생 포함),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이주인) 등 50% 할인. 문의 062-524-5086.

/*김대성기자 mekim@kwangju.co.kr

황영성 ‘가족’ 보성 나들이

12일~내년 2월 28일까지

우종미술관 초대전

중진 서양화가 황영성(68·조선대 명예교수)씨가 올 겨울 문화소외지역인 보성나들이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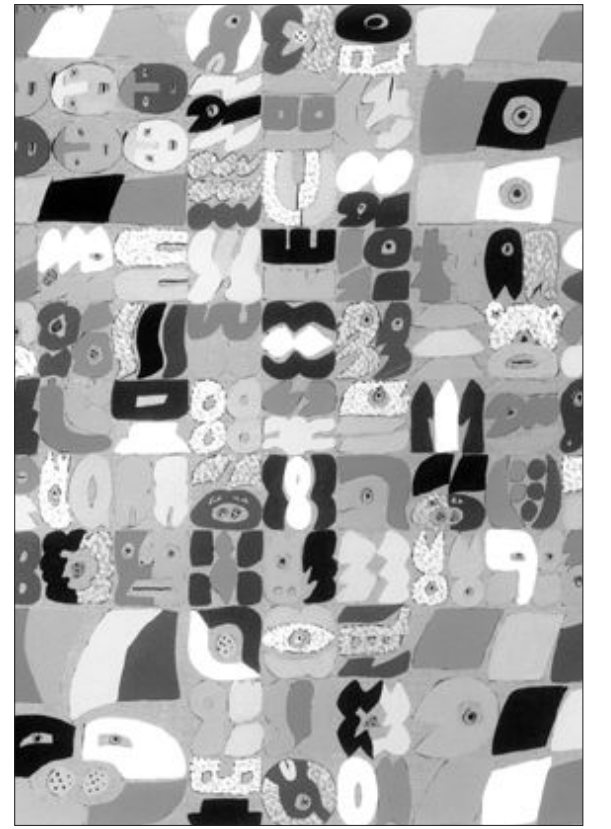
보성에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우종미술관은 12일~내년 2월28일까지 ‘황영성 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황 작가의 50년간 미술활동 중 1970년대 작품부터 최근 작품까지 50여점이 선보인다. 특히 우종미술관은 미술관 1층과 2층은 물론 보성CC 클럽하우스 로비까지 황 작가의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우종미술관은 개관전 ‘현대미술의 발자취’ 이후 ‘일본 근현대 작품전’을 기획전으로 선보여 미술계의 관심을 끌었다. 우종미술관은 자체 소장품을 통해 고서화, 도자기, 공예품 등 한국 근현대 미술작품과 함께 외국 주요작가 작품 등 총 1천200여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개관전에서는 고 박수근과 김환기, 백남준 등 대가들의 작품을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수십여 개의 공·사립 미술관이 있지만 우종미술관의 컬렉션은 거의 독보적이다. 웅대한 서울지역 유명미술관의 컬렉션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다.

황영성씨는 “남도의 시골 마을에 이처럼 훌륭한 컬렉션을 갖춘 미술관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 초대전 제의를 흔쾌히 수락했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많은 지역 작가들이 농촌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씨는 이번 전시에서 형태를 단순화시켜 가족의 모습을 그린 대표작 ‘가족이야기’와 세련된 면 분할과 안정감을 주는 색상 대비가 돋보이는 ‘꿈의 숲’, ‘그들만의 낙원’ 등 신작 등을 선보인다. 사람, 꽃, 동물 등의 다양한 삶이



‘가족이야기’

공존하는 ‘가족 이야기’는 점차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현대인들에게 바람직한 가족상을 따뜻하고 서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술평론가 오광수씨는 “황영성의 작품 속엔 강한 음악성이 내포돼 있다”며 “색채 조화와 대비는 음악의 조화와 대비로, 시각적인 데서 청각적인 빠른 전환이 이뤄졌다. 이제 그의 화면은 화려한 음악의 어우러짐 보다 무겁고도 낮은 음악의 은은한 화음이 대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열화당 이기웅대표 광주독자와의 만남

내일 오후2시 총장서림

최근 ‘안중근 전쟁, 끝났다’ (열화당 펴냄) 개정판을 낸 이기웅(69·열화당 대표·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사진)씨가 광주를 찾는다. 10일 오후 2시 광주 총장서림. 이번 광주 방문은 (사)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의 주최하는 ‘저자와의 만남’ 행사 일환이다.

1980년대 말부터 출판인들과 함께 파주 출판도시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이씨는 개정판 ‘안중근 전쟁, 끝났다’를 중심으로 ‘안중근 정신’과 출판인으로서 살아온 삶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번에 펴낸 책 ‘안중근 전쟁, 끝났다’는 지난 1999년 초판의 일



출간했다.

이씨는 1940년 강릉 태생으로 선교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강릉상고와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 추진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한국출판문화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인상, 제20회 언론출판부문 인촌상 등을 수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다형 김현승 시 낭송회

내일 광주지철철 상무역

‘절대고독’의 시인 다형(茶形) 김현승(1913~1975) 선생의 문학사적 업적을 기리는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선생의 시를 낭독하고 있는 가운데 ‘다형 김현승 시 낭송회’가 열린다. 10일 오후 6시 30분 광주지철철 상무역 무대.

다형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회장 손광은)이 주최하고 광주문인협회, 광주시낭송가협회, (사)한림문학재단이 후원한다.

이국화 시인의 판공무대로 막을 열고 이기환, 이슬하, 김해재, 박형자씨 등 지역 시낭송가들이 선생의 대표시 ‘고독’, ‘눈물’, ‘가을의 기도’ 등을 잔잔한 선율에 맞춰 낭독할 예정이다. 문의 062-226-377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동북아 경제 중심지.. 서해안, 새만금을 주목하라!

새만금-편산~고시포~적포~상록~모항 해수욕장까지의 투자 벨트 형성

○검증된 추천 물건○

- 상록해수욕장이 보이는 펜션부지 300평(전) - 평당 80만원 150평(전) - 평당 80만원 470평(당) - 평당 150만원(상가 및 펜션,분할가능)
- 적포 바닷가, 펜션, 토털부지 500평 - 평당 180만원(대,전,모텔,1층 포함)
- 전원주택 및 투자부지 1000평 - 평당 25만원(당) 500평 - 평당 60만원(부안염안,주택1동 포함) - 투자물건 다량확보중(소액부터 다액까지) 1200평(전)-평당 35만원 (2~300평 분할가능) - 투자물건 다량확보중(소액부터 다액까지)

*새만금 관광시대 임박으로 펜션 투자시, 광주지역 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는 년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2010년초 방조제 개통으로 자금이 투자 적기

*오랜 실무경험으로 매입에서 매도까지 책임중개

서해안·새만금 지역 전문 중개업소 보임부동산투자개발

상담전화 : 062-527-8844/010-8004-5900/016-609-5888

광문공인중개사

☎ 062-365-1920

모텔 임대 매매 전문

- 신축 무인텔 급임대 무인텔 월매출 5천이상 4억5천에 월 1,500만원 신축모텔 부지다량확보!
- 일반모텔 월매출 5천이상 급 매매가 15억원 은행대출 8억 실투자금 7억 OK
- 전국 모텔 임대 매매 전문 → 손님이 와글와글하고 일짜배기 모텔!
- 순천 모텔 임대 보증금 3억 월 900만원 목포 해안도로쪽 모텔 급 매매 다량 확보!

모텔임대사업

- 3~4억 투자하시면 매월 1,000만원 이상 소득 확보! 등기필 100%
- 광주근교 → 나주, 화순, 장성, 담양 → 임야 2만평 이상을 급히 찾습니다. 진입로 있는 임야대형영

교환

- 목포 → 모텔, 사우나, 주차장, 세차장

010-7637-7743, 010-4703-6223, 011-623-8972

금호부동산컨설턴트

☎ 224-5959/010-2831-1733

광주 전남권 부동산 10-35% 할인

- * 금매 부동산 중개 *
- * 경매 부동산 중개 *
- * 대출 부동산 중개 *

부동산 투자는 금호부동산 컨설턴트와함께

전화 224-5959 / 010-2831-1733

부동산투자클럽

T. 011-641-0925, (062) 515-4985

상가건물(계림동 동부소방서) 대 453㎡ / 건 2011㎡ (사우나+원룸21실+주택) - 수익률 13%이상 매매가 20억(설정 10억, 조정가)

▶ 상가건물(완도읍 여객선터미널옆) 대 280㎡ / 건 989㎡ (상가+모텔19실+주택) 수익률 아주 좋은 매매가 10억(조정가)

토지(광주호상류-가든식당, 과수원, 임야) - 34.830㎡ 매매가 3.3㎡ 당 12만원(분할가)

▶ 농지(부안군 운남면) 23.800㎡ (바닷가, 계획권리지역) 매매가 3.3㎡ 당 20만원

대지(신촌동) 764㎡ (버스승강장, 전철역 5분거리) - 매매가 ㎡ 당 36만원(원룸, 빌라, 물류창고적합)

▶ 고시텔(전대후론 체육공원 인근) 대 282㎡ 건 560㎡ (최근준공) 52(룸당 월임대료 23만원) 매매가 8억5천

대지(북구 신안동) 402㎡ (물류창고최적) - 매매가 3.3㎡ 당 150만원

▶ 농지(전.담양군 금성면) 883㎡ (관리지역) 매매가 3200만원(조정가)

농지(충효동-광주호상류)전 1,927㎡ - 각종 유실수 100여 주식제, 매매가 ㎡ 당 925천(가격조정가)

▶ 가든식당(월출산국립공원 인근) 7,865㎡ 식당, 숙박업, 단란주점, 체육시설, 농장 모든시설 허가 필 - 매매가 3.3㎡ 당 32만원

경매부동산상당, 대출상당, 각종부동산투자상당

부동산투자클럽 공인 중개 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0-3(용봉동 하이마트 옆)